

# “기댈 곳 없다”...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놓인 기업들 ‘한숨’

정부, 지원금제도 개편연구 착수  
급식업체, 지원금 조건 해당 안돼  
코로나 이후 급식업체 715곳 폐업



고등학교 3학년 등교를 하루 앞둔 지난달 19일 오전 광주 북구 살레시오고등학교 코로나19 예방 칸막이가 설치된 급식실에서 광주 북구청 방역반원들이 방역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의 경우 기댈 곳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 착수했다고 알려지며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4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올해 전국 2086곳의 집단급식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후 위

탁급식 영업을 하는 급식업체 715개가 폐업했다.

급식업체는 한 학기나 연 단위로 학

교와 계약을 맺어 사업을 이어간다. 식자재를 선구매해 급식을 준비하면 정산은 학교 측에서 사후처리하는 구조다.

따라서 개학 연기와 단축 수업 등으로 급식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식자재 재고 등은 급식업체의 몫이다.

문제는 급식업체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업 근로자의 1개월 총근로시간이 직전 4~6개월 전보다 20% 이상 줄어야 한다. 하지만 초중고교의 등교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속도에 따라 실시간 결정되기 때문에 당장 인력을 줄이거나 식자재 매입을 멈출 수 없다.

한국급식협동조합 김진수 전무는 “학교와 계약 다 해놨어도 등교 중지, 등교 감소 등으로 납품이 무기한 연기됐다. 언제 다시 풀릴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때문에 인력, 예산들을 줄일 수도 없고 피해만 보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이 있는

반면 우리를 위한 지원책은 전혀 없다. 다수 국회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도 건의했지만 회신이 온 곳은 한 곳도 없다”고 토로했다.

한 급식업체 관계자도 “1년 동안 일을 거의 못 한다거나 다름없는데 어떤 지원금도 나오지 않는 건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알려지며 연구 결과에 대한 기대가 쏠리고 있다. 해당 연구는 노사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연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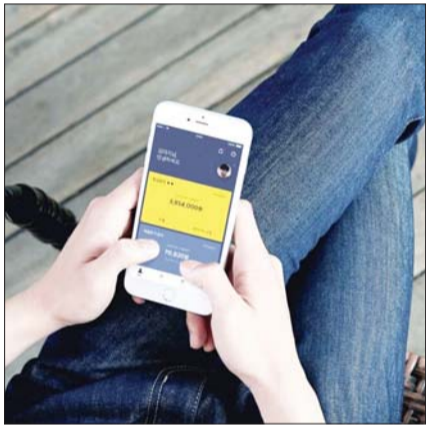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보완할 부분이 생기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 3분기 누적 순익 859억... 비이자 흑자 전환



순수수료 이익 41억... 분기 첫 흑자  
주식계좌개설 신청 등 수수료 수익 ↑  
순이자마진 1.64%, 연체율 0.23%



카카오뱅크 앱 사용 화면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는 4일 올해 3분기 순이익이 406억원이라고 밝혔다.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859억원이다.

상반기에 이어 흑자 기조를 이어간 가운데 수수료 수익이 늘면서 비이자부문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3분기 기준 순수수료이익은 41억원이다. 분기 기준 첫 흑자다.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도 3억7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순손실 391억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전국 모든 ATM 수수료 무료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등에도 불구하고 주식계좌개설 신청과 신용카드 모집 대행, 체크카드 이용 실적 확대 등으로 흑자를 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3월부터 여러 금융사와 제휴를 통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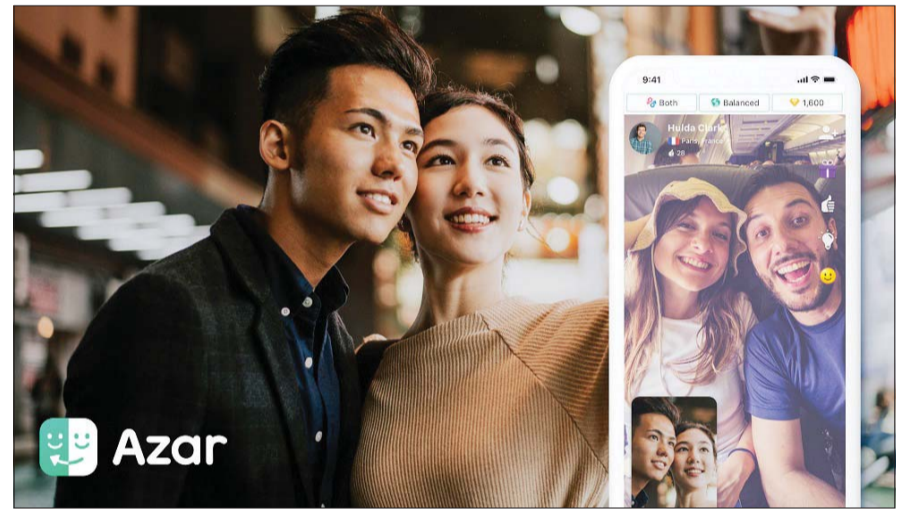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

권과 연결하는 주식계좌개설신청서비스는 올해 9월 말 누적 기준 261만 증권계좌가 카카오뱅크를 통해 개설됐다.

신용카드사 4곳과 함께 선보인 ‘신용카드 신청 서비스’를 통한 발급 신청 건수 역시 9월 말 기준 40만건에 이른다. 지난 9월부터는 한국투자증권의 해외주식거래서비스인 ‘미니스탁’도 카카오뱅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자부문의 순이자이익은 대출 자산 증가로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1079억원이며, 누적으로는 2908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이자마진(NIM)은 1.64%다.

9월 말 기준 대출 상품의 잔액은 18조 7300억원이며, 3분기 중 대출 증가액은 1조 39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 자산은 25조원이다. 연체율은 0.23%, 바젤III 기준 BIS자본비율은 13.45%를 기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아자르’ 대표 이미지.

/하이퍼커넥트

글로벌 이용자 99%... 월 사용자 1억명...

## 해외시장서 잘 나가는 토종 기업들

하이퍼커넥트 상반기 매출 1235억  
스마트스터디 매출액 80%가 해외  
센드버드, 지난 5월 1200억 투자유치

지했다.

핑크퐁 ‘아기상어’로 알려진 콘텐츠 기업 스마트스터디 또한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이다. 지난해 해외 매출액은 808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 기획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이 주목받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토종 영상메시저 애플리케이션(앱) ‘아자르’ 개발사인 하이퍼커넥트는 올 상반기에만 123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매출의 95% 이상은 해외 시장에서 거두고 있다.

하이퍼커넥트의 대표 서비스인 아자르에서는 전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친구, 가족은 물론 지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아자르는 현재 230개 국가에 서비스되고 있으며 최근 5억 다운로드와 900억 건의 누적매치를 달성했다. 글로벌 이용자는 99%에 달한다.

아자르는 최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핵심 시장 8개 국가에서 구글플레이 비게임 앱 커뮤니케이션 매출 순위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인도에서는 애플 앱스토어 1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다양한 국제 학회에서 IT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이퍼커넥트의 머신러닝팀은 2017년 구글코리아가 주최한 머신러닝 챌린지에서 준우승을 차

스마트스터디는 지난해 북미에서 ‘하스브로’, ‘스핀 마스터’, ‘크레올라’, ‘크룩스’ 등 유명 라이선서와의 계약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늘렸다. 스마트스터디에 따르면 지난해 8월에는 핑크퐁 아기상어 사운드 인형이 아마존 토이&게임 분야 1위 달성했으며, 핑크퐁 아기상어 시리얼은 미국 월마트 시리얼 판매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인 센드버드는 세계 최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로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등 유니콘 기업을 키워낸 YC에 선발되며 성장했다. 현재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서비스 중인 센드버드의 월간 사용자는 1억명에 달한다. 대표적인 고객으로는 동남아시아 최대 모빌리티 스타트업인 고젝, 미국 유명 소셜미디언 레딧, 미국프로농구(NBA) 사이트, 야후 스포츠 등이 있다. 센드버드는 지난 2017년 17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총 120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진옥동 신한은행장, 중기부 ‘은답산업훈장’ 수상

기업간 동반성장 기여



진옥동 신한은행장.

신한은행은 진옥동 행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0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은답산업훈장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동반성장 유공자 포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추진을 통해 기업 경쟁력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업훈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활동에 큰 업적이 있는 경영자와 임직원에게 수여하는 국가 최고 등급의 포상이다.

진 행장은 ‘고객 퍼스트(First)’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같이 성장하기 위한 자발적 상생협력 및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진 행장은 ‘한쪽 어깨가 젖더라

도 고객과 우산을 나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임직원에게 강조해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 자금 지원, 분할상환 및 이자유예, 금리우대 등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수행하고 ▲우리동네 응원 프로그램 ▲착한 선결제 ▲희망의 도시

락 등 각종 캠페인을 마련해 자영업자의 판로 확대를 위해 힘써왔다.

또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자상한 기업’ 협약을 통해 총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 투자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특화 신상품 출시 ▲청년 취업·창업 지원 및 자영업자 자생력 강화를 위한 성공 두드림(Do-Dream)프로그램 운영 등 자발적 상생협력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 행장은 “신한은행과 손을 잡아주는 고객과 동반성장을 위해 힘써온 임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계속 임직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고객, 사회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상생과 협력의 힘찬 발걸음을 함께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안상미 기자